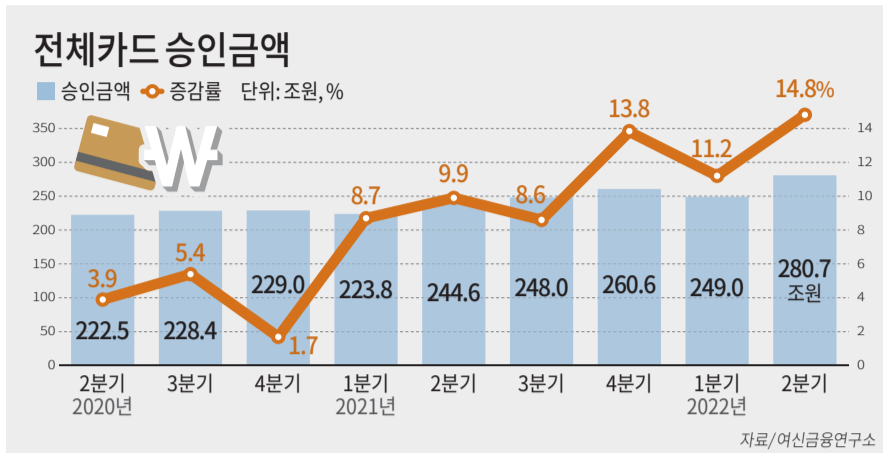


# 보복소비에 카드 팍팍 긁었지만... 카드사, 하반기는 '암울'

2분기 카드 매출액 14.8% 증가  
상반기 역대급 실적 기록했지만  
금리, 건전성 악화 등 리스크 ↑  
잇단 악재에 하반기 실적 안갯속

올 2분기 카드매출액이 지난해 동기 대비 14.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승인건수 또한 11.4% 증가했다. 지난 분기와 비교해도 으뜸세다. 지난해 4분에서 1분기 전체 카드 승인금액은 하락세를 보여 주춤했지만 2분기에는 반등에 성공한 것이다. 그러나 카드 업계의 표정은 밝지 않다. 지속되는 악재로 하반기 실적에 먹구름이 끼었기 때문이다.

지난달 31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2022년 2분기 전체카드 승인금액과 전체카드 승인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상승했다. 전체카드 승인금액은 280조 7000억원. 이 가운데 개인카드 승인금



액은 226조2000억원(13.4% ↑)으로 전체 승인금액의 80.58%를 차지했다. 법인카드 승인금액은 54조7000억원(20.6% ↑)으로 19.48%다. 전체카드 승인건수는 66억1000만건을 기록했다. 이중 개인카드 승인건수는 62억3000만건(11.6% ↑)이다. 법인카드 승인건수는 3억9000만건(8.4% ↑)이다.

여신협회는 2분기 카드매출액 반등 이유로 사회적거리두기 해제 이후 백화점 등 오프라인 영업점의 매출 상승을 꼽았다. 이어 여행 수요 증가로 인한 숙박업소와 음식점 등의 매출 상승 또한 이유로 꼽힌다. 이번 2분기는 비대면·온라인 구매 증가세가 지속했다. 이어 백화점, 차량연료 등의 매출 증가로

도매 및 소매업은 승인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약 13.0% 증가했다.

운수업은 74.1% 치솟았다. 여행·이동 증가 및 지난해 2분기 항공기를 비롯한 교통수단 이용률이 저조했다. 이에 따른 기초효과로 풀이한다. 특히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의 증가세가 두드러진다. 테마파크 등 여가 관련 시설 방문객 회복세와 프로스포츠 관람제한 해제 등으로 22.7% 상승했다.

그러나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대비 상승했을 뿐 여전히 팬데믹 이전에 비하면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다. 팬데믹 이전인 2019년 동기와 비교하면 '숙박 및 음식점업'은 18.4% 감소했다.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은 18.6% 하락했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여전히 회복세에 있다. 팬데믹 이전으로 돌아갔다고 말하기에는 이른 시기다"라고 말했다.

카드업계 또한 상반기 '역대급 실적'을 기록했지만 기뻐할 틈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어지는 금리인상 기조에 조달금리 급등과 건전성 악화 등 하반기 경영 리스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여신협회장 출신의 김주현 금융위원장의 금융혁신 계획에 카드 수수료 개선 관련 내용이 빠지면서 어려움이 예상된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영업이익이 나더라도 대손충당금 적립 등 리스크 관리 기조에 발맞춰 당기순이익은 적자를 기록할 수 있다"고 말했다.

7월까지 실적을 발표한 카드사 5곳(신한·KB국민·삼성·우리·하나카드)의 상반기 순이익은 평균 5.3% 증가했다. 이 가운데 신한·삼성·우리카드는 전년 동기 대비 순이익이 증가했지만 KB국민·하나카드는 감소세를 나타냈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 신협, 장수군민 1000명에 '한방의료봉사'

장수군 노인복지관 찾아 닷새간 진행  
침·부항·치매·불면증 등 맞춤형 치료  
"지역 어르신 건강한 삶 위해 지속 추진"

신협중앙회가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어르신을 위한 봉사에 나섰다.

신협사회공헌재단은 무궁화신협, 경희대학교 의료봉사단 '피닉스'와 함께 전라북도 장수군 장계면에 소재한 장계 노인복지관 대강당에서 의료봉사를 실시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지난 7월25일부터 5일간 진행된 이번 의료봉사는 무궁화신협이 주관했다. 신협중앙회와 신협사회공헌재단이 후원, 경희대학교 의료봉사단 피닉스가 협력한 사업이다. 이어 무궁화신협 임직원 및 경희대 의료봉사단원 등 총 70여 명의 봉사자가 참여했다. 장수군 지역민 약 1000명을 대상으로 무료 진료를 제공했다.

의료진은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진행했다. 외과, 침구과, 보안간호과, 주민과 등 총 8개 파트로 구성했다. 어르신이 선호하는 침·부항·뜸 치료, 외용 치료, 치매 및 불면증 치료, 테이핑 요법 등 맞춤형 진료와 처방을 했다.

재단은 2015년부터 6년간 도서·산간



신협 2022년 하계 한방의료봉사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송성수 무궁화신협 이사장(앞줄 왼쪽 여섯번째), 박찬호 경희대학교 의료봉사단 피닉스 회장(앞줄 왼쪽 일곱번째) 우측부터 신협사회공헌재단 상임이사(앞줄 왼쪽 여덟번째), 양춘제 신협사회공헌재단 이사(앞줄 왼쪽 아홉번째).

등 의료 접근성이 낮은 취약지역 내 주민을 대상으로, 의료봉사를 했다. 하계와 동계 연 2회 한방의료봉사 사업을 실시한다. 올해까지 전국 12개 지역 내 의료 취약계층 1만1173명에게 무료 한방진료를 제공했다. 경희대학교 의료봉사단 및 신협 임직원으로 구성된 총 607명의 자원봉사자가 참여했다.

김윤식 신협 사회공헌재단 이사장은 "신협은 농촌과 상생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의 어르신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 서비스를 지원할 것"이라며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

내 다양한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송성수 무궁화신협 이사장은 "무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장수군 지역민을 위한 의료봉사활동을 진행해 준 경희대학교 학생들에게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도 장수군 주민을 위한 지역연계 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겠다"고 했다.

박찬호 경희대학교 의료봉사단 피닉스 회장은 "3년 만에 봉사활동을 재개할 수 있었다"라며 "이번 의료봉사가 지역 주민의 건강관리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

## 농협금융 "2030년 글로벌 총자산 22조 목표"

글로벌 사업 점검 전략협의회 개최

농협금융이 세계화 전략회의에 나섰다.

농협금융은 서울 중구 소재 본사에서 '2022년 제2차 글로벌전략협의회'를 개최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김용기 사업전략부문장이 주관했다. 대면회의와 화상회의를 연계해 계열사 글로벌사업 담당 부서장과 전 해외점포장이 동시에 참여했다.

회의에서는 '합종연횡'의 기본 전략 아래 글로벌사업의 주요 성과를 점검했다. 농협금융 신비전 달성을 위한 중장기 성장로드맵을 제시했다. 이어 그룹 차원의 글로벌사업 경영목표를 선포했다.

아시아 권역 내에서는 농협은행 중국 북경지점을 개점했다. 인도에서 노이다 지점의 개점을 준비 중에 있으며, 선진 금융허브인 런던과 호주에는 NH투자증권 런던법인을 개설, 농협은행 시드니지점의 개점 준비를 마무리하는 등 1단계 네트워크 구축을 완료했다.

2030년까지 11개국에 27개 네트워크를 확보, 글로벌 총자산 22조원과 글로벌 당기순이익 3240억원 달성을 목표로 중장기 목표를 세웠다. ▲해외점포 경영 내실화와 ▲글로벌-디지털 비즈니스 본격화 ▲글로벌 전략투자 추진 및 ▲사업



농협금융은 지난 7월28일 서울 중구 소재 본사에서 '22년 제2차 글로벌전략협의회'를 개최했다. 김용기 사업전략부문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농협금융지주

추진 인프라 확충의 4대 중장기 핵심과제를 선정하고 실행계획을 마련했다.

글로벌-디지털 비즈니스는 디지털 기반의 글로벌 사업 추진을 통한 성과 창출을 의미한다. 하반기에 계열사 공동 투자펀드를 정식 출범해 투자에 나설 예정이다. 글로벌사업 추진 인프라 확충을 위해 우선적으로 글로벌인력의 역량을 강화하고 현지고객기반 확대를 추진한다.

이날 김용기 부사장은 해외점포 경영 내실화의 두 축으로 현지 비즈니스모델 고도화와 내부통제 강화를 강조하며 "비즈니스 모델 고도화는 긴 호흡을 갖고 현지 수익원 다각화에 힘써야 하며, 고금리와 달러 강세에 따른 신흥국 경기 불안정성 확대에 대비해 철저한 리스크관리와 선제적 내부통제 강화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산 기자

## 우리금융, 청년 금융지원 프로그램 강화

3일부터 '청년사업 재기 프로그램'  
'내 집 마련 지원책'도 시행 예정

우리금융그룹은 내달부터 '청년사업가 재기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올 하반기 청년층에 대한 다양한 금융지원을 본격화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우리은행은 오는 3일부터 은행권 최초로 '청년사업가 재기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과거에는 사업실패로 신용등급이 하락한 청년사업가에게는 대출이 사

실상 어려웠다는 점을 감안해 청년층에게 다시 일어설 기회를 제공한다는 방안이다.

'청년사업가 재기 프로그램'은 대표자가 만 19세에서 만 39세 이하로 최근 5년 내 폐업 사실이 있고 외부 신용등급 6(+) 구간 이하인 법인이라면 신청 가능하다. 비재무적 요소를 반영한 특별심사로 미래 성장성을 갖춘 기업을 선정해 건당 최대 3억원 이내, 최대 5년 이내 분할상환 방식으로 지원한다.

또한 우리은행은 이번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하반기에는 청년층의 내 집 마련 지원책도 시행할 예정이다.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은 "지금의 청년세대가 2030년에는 생산연령 인구의 60%를 차지하게 된다"며 "최근 전 세계적인 복합 경제위기로 20~30대 청년층과 금융 취약계층이 큰 어려움을 겪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주거, 창업 등 청년세대에게 가장 절실하게 금융지원이 필요한 분야를 시작으로 청년층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

## JB금융지주, 사상 첫 중간배당 실시

JB금융지주가 주주환원정책의 일환으로 사상 첫 중간배당에 나섰다.

JB금융그룹은 최근 보통주 1주당 120원의 중간배당을 의결했다. 시가배당율은 1.6%, 배당기준일은 지난 6월 30일이다.

JB금융 관계자는 첫 중간배당에 대해 지난달 31일 "김기홍 JB금융 회장의 주주환원 강화 정책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기홍 회장은 지난 7월26일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중간배당은 JB금융그룹 설립 이후 최초이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하고 효과적인 주주환원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JB금융은 올해 상반기 3200억원의 순이익을 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5% 늘어난 수치로 역대 최대 규모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